

최수연(박여숙화랑)

국제 아트페어와 미술시장의 지각변동

최근 급변하는 세계 미술시장 상황과 갤러리의 아트페어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국제 아트페어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적인 성격의 저명한 아트페어들은 고액의 참가 비용이 소요되어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으며, 그 마저도 참가가 제한되어 있다. 한편, 대안으로 등장한 신규 아트페어들은 개성과 참신함으로 차별화를 공략하고 있지만 탄탄한 고객층의 부재로 성과의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불가피한 해외 아트페어에서 성공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아트페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아트페어의 성향, 고객층, 시장규모와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갈수록 아트페어의 숫자가 막대하게 늘어나면서 일일이 방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참가 갤러리로서 수많은 아트페어를 참관하였으나 (그러나 종일 부스에 매여 있으니 제대로 못 보기 십상이다) 아직 몇몇 페어에 직접 가볼 기회가 없었음에, 이번 프로젝트 비아 리서치는 그 페어들을 방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현역 갤러리스트로서 실질적인 내부 정황 조사와 연구, 네트워킹을 가짐으로써 향후 아트페어 기획에 직접적인 도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별 리서치로는 10월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와 11월 토리노에서 열리는 아티시마를 기획하였다. 프리즈는 올해 15주년을 맞이하여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 페어로 손꼽히고 있으며, 가장 참가비가 비싸고 진입이 힘든 페어 중 하나이다. 아티시마는 프리즈보다 근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일류 국제 페어가 갖춘 시장성이나 흥행성보다는 참신한 전시 기획으로 미술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페어이다. 유럽권역 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이 두 페어를 비교하면서 향후 한국 갤러리로서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프리즈에서는 현대 미술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의 아트신 및 국제 미술시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아티시마에서는 페어의 차별성을 어필하기 위한 전시 큐레이팅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기획형 리서치로 마련된 상해 일정에서는 11월 같은 기간에 열리는 Art021과 Westbund 두 개의 페어를 관람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상해 미술시장 및 아트신을 둘러보았다. 홍콩에 이어 중국/아시아 권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앞 다투는 서구 갤러리들과 개인 컬렉터들이 이끄는 사립 미술관들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이러한 현상의 시사점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갤러리의 국제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Frieze

매년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시즌 미술시장 개시를 알리는 페어는 단연 프리즈일 것이다. 1991년 매거진으로 시작하여 2003부터 아트페어를 개최한 프리즈는 지속적인 성장의 여세에 힘입어 2012년 프리즈 뉴욕, 프리즈 마스터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페어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프리즈 런던 (Frieze London) 에 31개국 160개 이상의 갤러리가, 프리즈 마스터스 (Frieze Masters) 에는 130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가하였고, 리전트 파크 내에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페어 사이에는 프리즈 스킵처(Frieze Sculpture 올해부터 여름 내내 대중에게 개방 된 조각 공원)가 자리하였다. '프리즈'라 하면 하나의 페어를 떠올렸는데, 프리즈 런던과 프리즈 마스터스를 같은 페어 아래 다른 섹션이 아닌 각각 독립적인 페어로 철저히 구분한다는 점은 현장에서 확연하게 보였다. Blum & Poe, Massimo De Carlo, Stephen Friedman, Gagosian, Goodman, Hauser & Wirth, Almine Rech, Thaddeus Ropac, Salon 94, Sputh Magers, David Zwirner 등 양쪽 페어에 참가하는 갤러리들도 다수 있었으며. 한국 갤러리인 국제, 현대도 두 페어 모두 참가하는 등 세계 유수 갤러리들이 치열히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해 프리즈 런던은 Main 갤러리 섹션과 이머징 갤러리를 위한 Focus 외에 Sex Work, Live 섹션으로 이루어 졌는데, 특히 올해 특별전으로 기획된 Sex Work는 Feminist Art & Radical Politics (페미니스트 미술과 급진적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Alison M. Gingeras의 큐레이팅 하에 7, 80년대 극단적 페미니즘을 수행한 여성작가 9명의 작업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하나, 혹은 여러 갤러리에 의해 각각 솔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섹션은, 당시 사회 규범에서 과도한 선정성과 불편한 내용으로 미술관에서 주로 검열되어 온, 또 그러한 정치적 검열행태를 비꼬는 특정한 영역을 상업의 최전선에 있는 아트페어에서 건드리는 대범함을 보여준 신선한 시도였다.

경력 12년 미만의 갤러리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Focus 섹션은 올해 Ruba Katrib (SculptureCenter, New York)의 지휘 아래 야심찬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갤러리들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인지도가 부족한 신진 갤러리에 속하기에, 저마다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이미지를 각인 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Focus 섹션에서 매년 가장 우수한 부스를 보여준 갤러리에게 수상하는 Frieze Focus Stand Prize는 올해 처음 참가한 Various Small Fires에게 돌아갔다. 한국 교포 Esther Kim Varet이 대표인 VSF는 Helen Mayer Harrison과 Newton Harrison 부부 듀오의 1972년 Survival Piece V Part II: Lemon Orchard Fragment를 재현하여 기후변화와 브렉시트 등 세계적 사회문제와 맞아 떨어진 '시기적절함' 프레젠테이션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메인 갤러리 섹션에서는 쟁쟁한 갤러리들이 중요한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였는데, 역시나 현재 진행 중인 베니스 비엔날레나 영국에서 최근 개최된, 혹은 개최를 앞두고 있는 미술관 전시에 포함된 작가들의 작업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시장에서 갈수록 밀접해지는 미술관과 갤러리의 상관관계를 입증 해 주었다. 특히나 평소 판매가 비교적 '어려운' 작품들은 외부(미술관) 전시가 동시에 열리면 작품을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노출과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프레젠테이션 중의 하나는 Hauser & Wirth가 꾸민 'BRONZE AGE c. 3500 BC - AD' 2017' 였다. 캠브리지 대학의 고전학 교수 Mary Beard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부스 전체를 가상의 박물관 방으로 꾸민 전시에는 여러 영국 박물관에서 빌려온 유물들과 루이스 부르주아, 폴 맥카시 등 갤러리 작가들의 브론즈 작업들을 쇼케이스 안에 교묘하게 섞어놓아 보물찾기 하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관객들로 북적거렸다. 자연 환경에 관한 주제로 Cristina Iglesias의 연못, Leonor Autunes의 금빛 폭포, Giuseppe Penone의 나무조각 등 야심찬 설치 작업을 매칭한 Marian Goodman 갤러리의 부스도 인상적이었다. 최근 베니스 비엔날레와 주요 미술관에서 주목받고 있는 Alicja Kwade의 솔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Kamel Mennour는 동시에 런던 갤러리에서 같은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프리즈 스킵쳐에도 외부 설치작업을 선보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프리즈 런던을 서너시간 둘러보고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프리즈 마스터스로 넘어 갔는데, 텐트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미술분야의 공간설계로 유명한 Selldorf Architects가 디자인한 내부 디자인은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프리즈 런던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프리즈 마스터스는 메인 갤러리 섹션 외에 큐레이티드 섹션인 Spotlight와 Collections로 이루어졌으며, 원시미술과 고대 유물에서 부터 고전 마스터와 20세기 근현대 미술까지 다채로운 미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아트페어 부스의 형식에서 벗어난 야심찬 기획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부스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Waddington Custot는 영국 팝아트의 거장 Peter Blake의 스튜디오를 재현한 부스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작가의 작업도구들과 개인 컬렉션이 작가 본인의 작업들과 어우러진 가운데 85세 노장의 작가까지 현장에 자리해 실제 작업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번 리서치 트립을 통해 현장에서 비로소 프리즈의 퀄리티와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해당 페어의 성격 및 성향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올해 프리즈는 아트페어의 가장 중요한 관객인 컬렉터와 미술관 큐레이터 모두 강한 참석율을 보이며 아트페어의 건실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페어측은 페어기간 동안 전 세계 미술관 및 미술기관에서 총 230개의 그룹이 방문했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미술계 전문가들의 높은 참여도는 페어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전문 큐레이터들에 의해 기획되고 정부와 기관에서 수집을 위한 여러 가지의 기금이 배정된다는 점이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여전히 서구 미술이 주를 이루었고 아직 미약한 아시아 권역의 갤러리나 작가의 비중에 비해 아시아 권역의 방문객 (컬렉터, 미술종사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였다. 한국 작가로는 국제, 리만머핀, 페이스 갤러리 등에서 출품한 이불, 서도호, 양혜규, 이우환 등의 작가들이 꾸준히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런던 - 미술시장의 중심

페어 프리뷰 하루 전에 도착한 런던 첫날의 일정은 갤러리와 옥션 프리뷰 방문으로 분주했다. 수년 만에 돌아온 런던은, 특히 프리즈 기간의 런던은 역시 런던이 현대미술 시장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실감케 하였다. 페어 시작 전날 여유롭게 갤러리 몇 군데를 보며 분위기를 보려는 계획은 오산이었고, 유수의 갤러리가 준비한 메이페어 지역에 발을 들인 이상



런던 갤러리들이 연중 가장 공을 들여 준비한 전시들을 모두 안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Thaddeus Ropac, Almine Rech, Gagolian, Spruth Magers, Pace, Simon Lee, David Zwirner, Pilar Corrias, Sadie Coles, Levy Gorvy, Skarstedt, 필립스 옥션 프리뷰 등을 단시간에 둘러보았는데, 특히 올해 4월에 개관한 Thaddeus Ropac의 런던 지점은 규모와 수준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주었다. 5층짜리 맨션을 통째로 개조해 각 방과 층마다 독립적인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는 작은 미술관을 방불케 하였다. Tate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앞둔 Ilya and Emilia Kabakov와 Robert Longo의 개인전이 진행되는 동시에 복도 곳곳과 private room에서는 Ropac 갤러리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들을 볼 수 있었다. Almine Rech에서는 작년 파리에서도 FIAC기간에 개최하였던 Tom Wesselmann의 중요한 작업을 전시하고 있었고, Pace에서는 Jean Dubuffet를, Pilar Corrias에서는 Rikrit Tiravanija의 새로운 영상 및 설치 작업을, Sadie Coles에서 열린 차세대 중국작가 그룹전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메이페어 일대에서 갤러리를 순회하는 사람들을 줄곧 마주쳤고 매일 저녁마다 곳곳에서 열리는 리셉션은 혼한 풍경이었다.

프리즈기간에 열리는 디자인페어인 PAD London의 프리뷰는 프리즈보다 하루 앞서 시작하였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 중앙에 위치한 Carpenter's Workshop 갤러리에 한국 디자이너인 박원민의 작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다. PAD는 프리즈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페어로 영향력 있는 한두 딜러를 제외하고는 규모나 수준면에서 많은 불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에는 미술관들도 모두 쟁쟁한 전시들로 가득해 4박 5일의 일정이 실로 빠듯했다. Tate Britain에서는 Rachel Whiteread를, Royal Academy에서는 Jasper Johns를, Barbican Art Center에서는 Jean-Michel Basquiat를, Whitechapel Gallery에서는 Thomas Ruff를, 이렇게 모두 각 작가의 전체 커리어를 조명하는 회고전 형식의 중요한 전시를 개최하였다. 수년의 준비를 거쳐 완성된 전시들은 각 작가의 대표 작업뿐만 아니라 초기 작업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작업까지 폭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Tate Modern은 올해 터바인홀 현대 커미션으로 Superflex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 'One Two Three Swing!'이라는 경쾌한 제목아래 관객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그네를 만들어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프리즈 페어 외에도 풍부한 불거리로 가득찬 런던은 이 기간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 매력이 충분히 보였다.



Artissima

10월의 런던 방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월 초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아티시마 방문 준비를 해야 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가보았지만 토리노는 초행이어서 지역의 문화와 현지 아트씬 분위기가 궁금하였다.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북서쪽 피에몬테 지방에 위치해 있고, 알프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스위스 국경에 인접해 있다. 밀라노에서는 차로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울에서 밀라노까지 직항으로 이동하여 다시 밀라노로 돌아오는 지점까지 전 일정 렌트카를 빌려 자유롭게 이동하기로 하였다.

페어 프리뷰가 열리기 전날 저녁 밀라노에 도착하여 다음날 오전에 토리노로 이동, 오후에 프리뷰에 참석하였다. Artissima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팅장으로 지어진 'Oval'이라는 이름의 유리 파빌리온에서 개최되었다. Oval은 과거 피아트 공장지구였던 링고토 (Lingotto)를 개보수해 쇼핑몰, 콘퍼런스센터, 호텔, 교육기관 등이 입주한 복합단지에서 위치해 있다.

아티시마는 1994년 설립 이래 실험성과 연구에 초점을 두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아트페어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31개국에서 200개가 넘는 갤러리들이 참가하였으며, 갤러리 섹션과 세 개의 아트섹션으로 구성되었다. 갤러리 섹션은 Main Section 외에 이머징 갤러리를 대상으로 한 Dialogue와 New Entries, 에디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갤러리를 위한 Art Editions, 이렇게 총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큐레이터들이 기획에 참여한 아트섹션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한 'Present Future', 현대미술의 선구자들을 재발견하는 컨셉의 'Back to the Future', 올해 처음으로 런칭한 드로잉을 위한 Disegni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으로 분류되어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티시마는 스마트한 디자인을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tool로 활용하였다. 섹션별 표시된 컬러는 관람객에게 명확한 구분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동선을 쉽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체적인 브랜딩과 시각 디자인도 이탈리아답게 감각적으로 기획되어 페어의 성격을 잘 반영하였다.

페어 전체의 40%정도가 이탈리아 국적의 갤러리이고 나머지도 유럽권역 갤러리들이 다수 차지해 전반적으로 유럽 작가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페어의 VIP, 일반 관람객들도 대부분



이탈리아인들이었다. 일부는 Franco Noero, Continua, Victoria Miro, Giorgio Persano, Sprovieri, Massimo Minini, Chantal Crousel 등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갤러리들이 참가 하였으며 신진 갤러리 중 대다수는 처음 들어보는 유럽권역 갤러리가 많았다. 대대적 상업적 성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페어인 만큼, 유명작가의 작품은 많이 찾아볼 수 없었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젊은 작가군이 많이 소개되었다. 큐레이티드 섹션 중에서는 'Back to the Future'의 컨셉이 독창적이었는데, 중요도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거나 잊혀진 작가를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은 최근 프리즈를 포함한 여러 페어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해마다 특정 연대를 지정하여 그에 맞춘 기획을 하는 점은 다른 페어와 차별화 되었다. 올해에는 1980-1989년을 주제로 지정해 그 시대에 현대미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가들을 재조명하였다.

이 외에도 두 가지의 특별 프로젝트가 있는데, 매우 신선한 기획으로 아티시마 만의 차별성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Deposito d'Arte Italiana Presente는 아티시마가 처음 시작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시마에서 다루어졌던 작가 130명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로, 20여년 페어 역사의 회고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자료가 되어 미술창고를 재현한 공간 곳곳에 디스플레이 되었다.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갤러리 뿐만 아니라 여러 미술관과 기관의 컬렉션에서 모인 작품들이었다. 아트페어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개념도 참신하지만 설치된 형식과 전시 디자인이 특히나 뛰어나 감상에 즐거움을 주었다.

PIPER. Learning at the discoteque는 60년대 토리노의 전설적인 클럽 Piper에서 이름을 빌린 살롱 컨셉의 공간이자 아티시마 토크 프로그램의 제목이었다. 매일 다양한 토크와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열렸고 프로그램 사이 '인터미션'은 음악 퍼포먼스 및 DJ-set으로 이루어져 Michelangelo Pistoletto, Alighiero Boetti, Mario Merz 등 당시 작가들이 자유분방하게 어울리던 클럽에 대한 오마주가 되었다. 오프닝날에는 Hans Ulrich Obrist가 재즈 색소포니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토리노 - 미술 후원문화의 전통

토리노 방문 이튿날과 세째날은 아티시마 기간 중 열리는 외부 전시를 방문하였다. 토리노는 여러 사립, 공립 미술재단이 아트신의 중심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Castello di

Rivoli, Fondazione Merz,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등이 있다. 매일 오전 페어가 시작하기 전에 페어 VIP를 위한 오프닝 시간이 따로 있어 페어에 온 미술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astello di Rivoli는 예전 사보이 가문이 살던 성으로 1984년 이탈리아 최초의 현대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피에몬테 주, 토리노 시, 리볼리 시, CRT재단, UniCredit 은행 및 기타 재단과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이탈리아 현대미술의 중요한 사조인 아테 포베라, 트랜스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업은 물론, 미니멀아트, 비디오 컬렉션 등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주요작가들의 작업을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으로 꼽힌다. 토리노 시내에서 20분정도 차로 이동하여 Rivoli의 높은 언덕에 들어서니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내부 방들은 18세기의 인테리어의 상당부분이 복원되어 있었고, 각 방마다 한 작가씩 배치하여 고전 인테리어와 현대미술의 황홀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재단 자체의 컬렉션도 훌륭했지만 M+ 등 세계 유수 기관과 협업하여 대여를 해온 작업들도 보였다.

Fondazione Merz는 이탈리아 Arte Povera를 대표하는 작가 Mario Merz를 기리기 위하여 2005년 설립된 재단 및 미술관으로, Mario와 Marisa Merz의 작업과 재단의 컬렉션 외에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개최한다. 2014년부터는 격년으로 Mario Merz Prize를 개최하여 미술전문가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1명의 우승 작가를 선발하여 수상한다.

1995년에 컬렉터 Patrizia Sandretto Re Rebaudengo가 설립한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는 개인 컬렉션으로 시작하여 현재 젊은 이탈리아 및 외국 작가를 후원에 매진하며 커미션과 창작을 장려하는 후원문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다.

토리노의 미술 기관들은 지역 국공립 기관 및 비영리재단, 사립재단 할 것 없이 적극적인 협업과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명문 귀족인 사보이 가문의 근거지로 예전부터 예술을 가까이 하고 미술후원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방문객들에게 아트페어 외에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 지역 컬렉터들 외에 조금만 더 외부 관객의 유치에 신경을 쓴다면 더욱 국제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Art021 Shanghai

토리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룹 리서치 일정에 합류하기 위하여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최근 몇 년 사이 상해의 두 페어가 급격히 성장함과 동시에 미술시장도 같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매년 다른 출장 일정이 겹쳐 직접 와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연이은 출장에 몸은 피곤했지만 수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상해의 미술시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대에 마음은 부풀었다.

Art021이 열리는 Shanghai Exhibition Center는 과거에 참가했었던 SH Contemporary가 열렸던 장소이다. 설립 후 빠르게 쇠퇴했던 SH Contemporary와는 다르게 어떻게 사업을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 페어가 성장하는 만큼 참가 화랑들의 성과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였다. 불과 5년전 부딕크 페어로 시작한 Art021은 올해 규모를 더욱 늘려 총 104개의 갤러리가 참가하였다. 참가 갤러리의 리스트는 수준이 다소 섞여있는 편이었는데, 대형 갤러리들과 소규모 갤러리들의 구획이 극명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양쪽으로 뻗은 Wing과 아래층 홀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는 동선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부스 위치에 따라 참가 화랑에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향후 참가를 하게 된다면 부스 위치 배정이 페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몇몇 유럽 갤러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중국에 베이스가 있거나 이미 중국에 시장을 구축하여 판매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고 판매처는 중국 본토 컬렉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항상 그렇듯이 페어의 전반적인 성과와 별개로 성과가 좋은 갤러리와 좋지 않은 갤러리가 있기 마련이라, 갤러리마다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Westbund보다 하루 일찍 시작한 Art021의 프리뷰 날에 가장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Westbund의 프리뷰날인 Art021 두째날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이다 이후 점진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유명 블루칩 작가의 고가의 작업들을 선보이는 대형 갤러리들에 반해 로컬 아티스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업도 다소 눈에 띄었다. 출품작과 기획 방식에 까다롭게 관여하는 정상급 페어에 비해 전시 콘텐츠에 대한 quality control이 미약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Frieze나 Artissima에서 보았듯이 전문 큐레이터를 참여시켜 특정 방향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Westbund

상해 출신 작가인 Zhou Tiehai가 이끄는 Westbund는 application process가 없이 invitation only로 소수의 갤러리만 참가하는 페어로 올해 4회를 맞이했다. 40개도 채 안 되는 갤러리들, 특히 해외 갤러리에 편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자칫 흥미 없는 페어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본 페어의 퀄리티는 참가 갤러리와 출품작 모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2 층으로 나누어진 메인 갤러리 섹션에는 총 39개의 갤러리가 참가하였고, 올해 신설된 TALENT 섹션에는 16개의 신진 혹은 중견 갤러리가 신진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였다. 메인 페어장 곳곳과 Westbund 야외 일대에는 작년에 이어 ArtReview Asia에서 기획한 Xian Chang 프로그램을 선보여 각 공간에 적합한 설치작업을 출품하였다. 전반적인 출품작 수준이 매우 높아 참가 갤러리들, 특히 서구 갤러리들이 미국, 유럽 페어에 못지않게 해당페어를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Art021에 이어 Westbund에서도 주요 컬렉터들과 큐레이터, 작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시아권, 특히 홍콩에서 온 방문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온 큐레이터들도 다수였다. 상해의 미술시장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 다다른 것 같았다.

아쉬운 점은 홍보와 마케팅, 기본적인 정보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따로 떨어진 TALENT 섹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그 부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되었다. Zhou Tiehai는 이런 점을 알고 있고 내년에는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개인 컬렉터가 이끄는 사립 미술관, 그리고 외국 갤러리들

Westbund 일대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이미 여러 사립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입주해 있어 이미 활성화가 된 모습이었다. 올해에는 페어기간에 맞춰 OTA Fine Art가 상해 지점을 개관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에 Edouard Malingue, Arario 등 '외국' 갤러리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상해 베이스 갤러리인 Shangart, Aike Dellarco도 외국인 디렉터가 운영하는 곳들이다. 상해에서 Leo Xu Projects를 운영하던 Leo Xu가 David Zwirner의 홍콩 디렉터로 영입되면서 본인 갤러



리의 폐관을 발표한 소식은 이번 페어 기간에 큰 화제였다. 이처럼 최근 미국, 유럽의 메이저 갤러리들이 중국권 사업 확장을 위해서 너도나도 중국인 디렉터를 영입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갈수록 외국 갤러리들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홍콩과 비교해 상해의 미술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상해 미술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해에 급격히 늘어나는 사립 미술관일 것이다. Long Museum, Yuz Museum, TANK, Fosun Foundation, How Art Museum, Shanghai Himalayas Museum 등 한 달에 하나씩 새로 미술관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립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대부분 개인 컬렉터가 본인의 컬렉션을 개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경우로, 컬렉터 본인이 작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갤러리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손님이다. 양측 페어에도 이런 컬렉터들을 겨냥하여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출품작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중국의 초기 미술시장은 중국 미술을 중심으로 수집하는 중국 컬렉터들로 인해 형성이 되고 성장 하였는데 외국 미술을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갈수록 컬렉션에서 외국 미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국내 작가 보다 투자가치가 있는 외국 작가를 선호하는 한국 미술시장의 케이스를 돌아보며 국적에 연연하기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작가의 발굴 및 육성이 갤러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깨닫게 한다.

글. 최수연

경영학을 전공하고 박여숙화랑에서 근 10년의 갤러리 경력을 거쳐 2017년 갤러리 P21을 개관하였다. 이전 박여숙화랑에서 국제파트를 담당하며 해외 유수 아트페어와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기획, 실행해왔으며, 이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작가 매니지먼트와 홍보를 통해 한국작가들의 국제시장 확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최근 급변하는 미술 시장 지형에 지속가능한 운영방향성 및 차세대 작가와 미술애호가들에게 맞춘 성격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P21에서 개관전인 최정화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21세기 동시대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춰 중견작가와 젊은 작가의 작업세계를 집중도 있게 소개 해 나갈 것이다.

※ 본 기사에 수록된 사진 및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사진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